

국제안전도시 전주 재난대응 훈련 1등

행정안전부 실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기업 참여·시민체험단 확대·매뉴얼에 따른 조치 등 높은 평가

행안부는 19일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종합훈련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안전훈련은 지난 5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진행됐다.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중앙평가와 시·도 자체평가로 나누어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전주시는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위로 해양수산부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와 함께 부문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시는 올해 훈련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화재·폭발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재난 유형으로 선정, 덕진구 팔복동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전라북도, 덕진소방서, 덕진경찰서 등 23개 기관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색·구조활동 및 현장통합지원본부·응급의료소 가동, 지휘권 이양 등의 시나리오에 따른 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시는, 청사 화재대피 훈련과 지진대피 훈련, 전 직원 비상소집 훈련, 민간기업 참여와 시민체험단 확

대 운영 등 모든 훈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했고 참여자들의 숙달정도가 높아 매뉴얼에 따른 조치 사항들을 정확하게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중희 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실제 재난이 발생한다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 점을 중점에 두고 준비과정부터 내실있게 준비해 결과가 좋게 나오게 되어 기쁘고 이번 훈련을 계기로 시의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에어커튼 설치로 시원한 승강장 만든다

전주시, 올해 시범설치 후 내년부터 확대하는 방안 검토 이용객 많은 승강장에 쿨링 트윈노즐 에어커튼 설치

전주시가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버스탑승을 대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더운 바람을 차단해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에어커튼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총 4000만원을 들여 버스승강장에 '쿨링 트윈노즐 에어커튼'을 58개 설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쿨링 트윈노즐 에어커튼은 공기 커튼을 형성해 공기순환 쿨링효과가 높고 설치 및 유지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설치되는 곳은 중앙시장 양방향과 중앙시장, 오목대한옥마을, 남부시장 양방향, 서부시장 양방향, 전통시장 양방향, 안행교 양방향, 이마트, 모래내시장 양방향, 전북대 농협, 일양병원, 덕진성당 앞, 금암국민은행앞, 첫

마중길 모두 20개 승강장이다. 또한, 시는 겨울철 추위에 떨며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 탄소발열지도 꾸준히 설치해나가고 있으며, 주요버스 승강장에는 바람막이와 방한텐트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에어커튼을 시범 설치한 후 시민만족도 조사를 통해 내년부터는 확대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그늘막쉼터와 에어커튼을 통해 시원함을 선사해 폭염피해를 예방하고, 겨울철에는 탄소발열의자와 바람막이로 추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따뜻한 승강장을 꾸준히 늘려 나갈 것"이라며 "전주시정의 핵심 가



전주시가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버스탑승을 대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더운 바람을 차단해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에어커튼을 설치하기로 했다.

치는 사람이다.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친절·공감행정을 펼쳐 가장 인간적 인 도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다문화지원센터, 이주여성 대상 교육 진행

근로·소비법 교육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하는시간 가져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8일 법무부와 공동으로 전주시역 결혼이주여성 25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의 인권증진과 한국사회이해를 돕기 위한 법 교육을 했다. '근로자와 법'과 '우리의 소비생활'을 주제로 2시간 진행된 이번 교육은 한국사회의 근로법과 소비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기본 법 질서를 이해하고 다양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레티 후엔진 씨(베트남 출신)는 "평소 돈을 절약하며 생활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소비와 소

비자 피해 예방법을 알게돼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현재 임신 중이라고 밝힌 소이다니 씨(캄보디아 출신)는 "출산 후 취업을 희망하고 있어 근로법 교육이 앞으로 취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교육에 참여하길 잘했다"고 말했다. 이지훈 센터장은 "다문화가족이 일상생활에서 근로법과 소비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며 "올바른 소비방법과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 건강한 한국생활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무더위 식혀줄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

국내 최정상 연주자들 참여... 24~28일까지 전주한벽문화관서

한 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국내 최정상 클래식 연주자들의 실내악 향연이 전주에서 펼쳐진다. 19일 시에 따르면,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전주한벽문화관 한벽극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이며 평일에는 오후 7시 30분부터, 주말인 28일에는 오후 5시부터 진행된다. 이번 축제는 최은식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지휘자 강창우와 바이올리니스트 김현미·백주영·이석중·김덕우·송지원·노윤정·정진희·유성

민·홍의연, 비올리스트 홍지혜·강윤지·이수민, 첼리스트 김민지·김연진·김소연·심준호·오지현·이정란, 베이스리스트 조영호·이영수·홍성혁·다순 장, 클라리네티스트 임상우, 플루티스트 장선아, 소프라노 강민성, 테너 신동원, 피아니스트 진영선, 문지영 등 총 30명의 연주자가 참여한다. 또한, 음악회 기간 6월 7일 동안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는 160여 학생들이 함께 참여, 개인레슨, 학생음악회, 오케스트라 연주, 마스터클래스, 실내악 프로그램 등 음악 아카데미도 함께 개최 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복숭아향 가득, 맛과 재미 듬뿍'

전주명품 복숭아 큰잔치 24~25일 전주종합경기장서

전주에서 생산된 맛과 품질이 우수한 복숭아를 맛볼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전주명품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와 전주농업협동조합은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전주종합경기장 주차장 일원에서 전주명품 복숭아의 우수성을 알리고 복숭아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제20회 전주명품 복숭아 축제'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20회째를 맞아 소비자의 취향에 맞고 맛과 품질이 뛰어난 4개 품종(마도가, 장막백봉, 대옥계, 그레이프프루)을 선발, 시중보다 10%정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행사장에서 판매되는 복숭아는 전주농협 농산물유통센터에서 품종과 크기, 당도 등을 규격에 맞게 공중 선별한 것으로 판매가격은 당일 도매시장 경락가격 등을 기준으로 결정 될 예정이다. 또한, 부대 행사로는 △복숭아 품평회 및 수상작 전시 △품종별 전시 △복숭아 개발음식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고 초대가 수 박우철, 배일호, 전국노래자랑 대상의 가수 김미정, 전주지역 가요쇼 전문 프로밴드 박흥배밴드 등의 축하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축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복숭아 직거래 장터와 시민가요제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한춘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전주명품 복숭아 큰잔치는 생산농가와 소비자가 직거래 행사"라며 "20회째를 맞는 이번 전주명품 복숭아 큰잔치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참여해 전주의 복숭아를 부담 없이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인규 전주명품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전주농협조합장은 "이번 축제 행사에 좋은 품질의 복숭아를 선별하기 위해 모두 최선을 다했다"며 "다양하게 즐길거리 볼거리도 준비된 만큼 시민들과 관광객이 많이 오셔서 제철맞은 복숭아를 맛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복숭아는 여름철 피로회복제로도 불리는 과일로 사과, 오렌지의 4~5배의 아스파르트산이 함유되어 있다. 아스파르트산은 근육에 쌓인 젖산을 분해 배출하여 피로회복에 특히 효과적이다. 또,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피부미용과 변비에도 좋다. 섭취방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과일인 만큼 너무 차게 먹으면 단맛이 사라지므로 서늘한 곳에 보관했다가 먹는것이 좋고 많이 먹거나 무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신문지에 싸서 냉장보관하면 된다. 이번 축제의 프로그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농업기술센터(063-281-6714)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c.or.kr *전자우편 : jvsc@hanmail.net